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육 년이 지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의 양과 염소는 늘어만 갔고 초초해진 라반은 야곱의 소유물이 되는 조건을 열 번이나 바꾸었다. 야곱에게 조금라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유리한 조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 창세기 31:2

라반의 마음이 좋을리가 없다. 라반의 아들들도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야곱의 소유는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줄어들고 있으니 자신들이 물려 받을 유산이 축소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가정 안에서는 레아와 라헬이 다투고 있고, 가정 밖에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 다툼이 있는, 불안 가득한 삶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 창세기 31:3

야곱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아직도 돌아오라는 기별이 없었고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도 문제였다. 십사 년간 야곱 덕분에 툭툭히 재미를 본 라반이, 지난 육 년간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고 야곱만 부유해진 것을 본 라반이 과연 순순히 보내주겠는가. 이것이 야곱의 문제였다. 먼저 사람을 보내 두 아내를 은밀히 불러내 의사를 묻는다.

지난 이십 년간의 일을 말하며 떠나자는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 열렬히 동의했다. 이 날 하루만은 레아와 라헬이 한 마음이 됐다. 두 사람 모두 라반에게 불만이 많았다. 두 여인의 말에 친정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만이 신랄하게 담겨 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 창세기 31:14-15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라서 라반은 집에 없었다. 그 틈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한 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소유물들을 모아 가만히 떠난다. 사위와 딸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라반이 알게 된 것은 사흘이 지난 뒤 였다.

라반의 추격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라반이 추격을 시작했다. 도망친 야곱도 문제였지만 드라빔을 되찾는 것이 시급했다. 드라빔은 집안에 두는 신상이다. 신전에 가서 송배할 수 없는 유목민들은 작은 크기로 축소해서 만든 신상을 집안에 두고 송배했다. 라반에게 드라빔은 송배하는 신이었고 물질과 풍요의 기원이었다. 반드시 되찾아야 했다. 유목 사회에서 드라빔이 사라진 것은 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라반은 자신의 형제들까지 동원해 충분한 무력을 갖추고 야곱을 추격한다. 라반은 야곱을 곱게 다룰 생각이 없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약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 창세기 31:24

칠 일을 달려 야곱을 잡기 직전 라반은 꿈을 꾸었다. 잘했든, 잘못했든 아무말도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라반이 도둑맞은 드라빔은 한 마디 말이 없었지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현몽하셔서 엄중히 경고하셨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을 라반은 아니었고, 체면을 지켜가며 야곱을 회유한다. 결론은 하나였다. 드라빔 내놔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나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 창세기 31:32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는 야곱이 큰소리를 친다. 있지도 않은 드라빔을 핑계로 라반이 자신을 붙잡으려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드라빔이 발견되면 라헬은 죽게 생겼다.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 그 위에 앉아버린다. 아버지가 오면 당장 내려와 절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단 하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 창세기 31:35

이제부터 야곱의 반격이 시작된다. 지난 이십 년간 꺾꽂 참아온 분노가 한 번에 터졌다. 억울한 항변이 아니라 절규에 가깝다. 여기 있는 형제에게 물어보시오, 지난 이십 년간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셨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 아니요?

한땀한 이십 년,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극진했는지 암양, 암염소는 새끼를 배면 낙태하는 일이 없었고 라반의 양 한마리 잡아 먹은 일이 없었다. 라반은 너무했다. 들짐승이 물어죽인 것까지 야곱이 배상하게 했다. 야곱이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으면 임금조건을 즉시 바꾸었다. 무려 열 번이나. 그동안 땀한 한을 풀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쏟아내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 창세기 31:42

야곱의 입에서 선약간에 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자 라반은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다. 내 딸들 말고 다른 아내를 두지 말 것. 다시는 이 곳을 넘어와 나를 찾아오지 말 것.

장인과 사위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맺어졌다. 돌 무더기를 모으고 기둥을 세우고 맹세한다. 각자의 지역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 그곳을 부르면서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부르며 판단을

구한다. 야곱과 라반은 맹세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룻밤을 보낸 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에서를 속이고 도망친 야곱이 이십 년의 도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도피생활을 보면서 불쌍하다거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임금조건이 계속 바뀌었다고 해서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야곱이나 라반이나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잘 속이던 야곱이 이제 본인도 당하기 시작한 것뿐이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야곱의 꾀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나타나다 보니 그의 꾀가 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잘못된 방법이라도 마음이 간절하면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적용을 할 위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간절함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일그러진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방법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꾀’가 멈추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므로.

* 야곱이 가리켜 맹세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라반이 판단을 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라반이 믿는 라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라반은 다신론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드라빔에 새겨진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